

보도일시	2024. 3. 5.(화) 배포	사진	2	자료	0	매수	1
담당부서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생활안전팀)	과 장	이기봉 (031-8021-0300)				
		팀 장	송해연 (031-8021-0330)				
		담당자	박주경 (031-8021-0334)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 ‘소화전 안전지킴이’ 운영

- 우리 동네 안전 환경 문화 조성 ‘의용소방대’ 모범사례
- 소화전 활용 경기도 ‘3대 특화전술’ 극대화



△ 용인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소화전 점검 및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사진 용인소방서 제공)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우리 동네 안전 환경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의용소방대 소화전 안전지킴이’ 활동을 5개월에 걸쳐 추진하며, 용인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 814개를 전수점검 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지킴이’는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유사시를 대비해 소방용수 관리에 중점을 둔 활동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화전 유지·관리 등 경기도 3대 특화전술(소방차량의 효율적 운용, 급수 확보, 급수체계 전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활동 내용으로 ▲소화전 출수확인 ▲노후소화전 도색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 ▲비상소화전함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초기 의용소방대 등 지역주민에 의한 초기진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민희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안기승 서장님의 제안에 우리의 손으로 안전 환경 문화조성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은 활동이 될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소방과 함께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안기승 서장은 “의용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으로서 감사드린다”라며 “소화전 안전지킴이 활동으로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역의 안전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